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4일(목)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항 공 과	담 당 자	• 항공산업팀장 • 담당자	이 상 욱 ☎440-4806 한 예 지 ☎440-480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항공정비(MRO)산업에서 인천형 일자리모델 찾는다

- 고용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 -
 - 노사민정 협력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기대 -

인천시가 항공정비(MRO*)산업에서 인천형 일자리모델을 모색한다.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약자로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를 뜻함

인천광역시는 23일 고용노동부(주관: 노사발전재단)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모델을 개발하고 이행 방안 수립을 지원해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자치단체만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인천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항공정비(MRO)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모델개발을 위해 이번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지난해 유치한 IAI 항공기 개조사업·미 아틀라스 중정비센터·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사업 등 기업들에는 맞춤형 직접일 자리를 지원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인천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광역시가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를 기반으로, 시 항공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항공정비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가 협력지자체로 참여한다. 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대학교·인천연구원·시민과 대안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 컨소시엄 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지역 산업 전문기관으로 항공MRO에 대한 연구를, 인천대학교·시민과 대안연구소는 노동 분야 전문기관으로 노사상생 일자리 전략과 거버넌스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인천연구원은 지역 전문기관으로 인천의 고용구조 분석을 통해 일자리 모델 개발을 수행한다.

현재 국내 MRO 산업은 항공사 중심의 자사 정비체제로 인해 전문기업들이 부족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내 항공정비물량의 51%, 약 7,560억 원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주요 항공정비 선도국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 결국 세계 항공 운송 능력 7위 국가임에도 MRO산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또한 이스라엘 IAI 항공기 개조사업(‘21.5.), 미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센터(‘21.7.),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22.1.)를 유치하는 등 인천형 MRO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약 3,000여 명의 직접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이후 MRO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그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단일 사업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모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2025년 항공기 개조·정비 클러스터 개시에 맞춰 더 나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국내 MRO산업 육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참고 2>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일자리 모델

참고 1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자체와 컨소시엄기관의 적극 협업 하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 및 이행방안 수립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1.(8개월)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지원대상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지원규모 : 자치단체별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
- ① (일자리 모델 지원) 지자체의 일자리모델 추진 단계에 따라 컨설팅 진행

주요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형 일자리의 의미 및 기본 원칙 숙지•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설정• 지역 고용거버넌스 진단 및 형성 방안 설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 생태계 진단 및 분석• 모범사례 지역 벤치마킹• 지역 노사분야 및 산업 전략과 상생형 일자리모델의 연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설계- 상생요소에 대한 내용 및 형식 검토- 상생협약문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상생협약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재정지원 사업 연계

- ② (전문가 자문) 경제·산업구조 + 노사관계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수립 및 정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참고 2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일자리 모델

<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일자리 모델 >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일자리 모델 대상분야>

구분	대상분야	선정사유
사업 지원	항공기 도장 (페인팅) 공장	환경 정화 시설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아주 높고 수익성이 낮지만 항공기를 개조하거나, 중정비 후에 필수 공정으로 인천공항에 시설 부재 시 항공정비 단가 상승 요인
	항공기 공용 부품센터	고가의 항공기 예비부품을 공유경제형으로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재고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지원
	항공정비 공용 장비 센터	고가의 항공기 정비장비 공유경제형으로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재고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지원
기반 조성	항공정비 교육·훈련원	항공정비 분야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인재 양성 지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사내 교육훈련원 통합
	항공우주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항공정비기업과 연계한 직업 교육 훈련체계 구축
	항공정비 기술 지원 센터	항공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퇴직 전문가 그룹을 통해 ① 기업에 정비기술 지원, ② 정비기술 개발(R&D), ③ 정비 관련 인증 지원 추진
	항공정비 Back-Shop 단지 조성	항공 부품 정비 등의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아파트형 공장 공급
여건 개선	정주여건개선	영종지역 항공정비산업 배후지원 도시 개발
	교통체계지원	호출형 대중교통체계(버스, 택시) 확대 강화
	항공정비일자리 지원센터	항공정비분야 일자리 매칭 및 고용 여건 개선 지원